

클래식 명곡 산책 - 14 - 오중주

글. 송주호 EBS IT운영부 선임



음악 듣기
(goo.gl/beu9Ju)

이번 달은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사중주에서 하나를 더한 오중주입니다. 완벽한 넷에 하나를 더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옛날에는 하나의 악기를 중심으로 작은 협주곡이 되는 경우(모차르트)도 있고, 혹은 모두 다른 악기로 편성하여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슈베르트)도 있었죠. 그러다 슈만이 모범적인 해답을 내놓은 이후 오중주는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다양한 편성과 다양한 내용의 흥미로운 시도를 볼 수 있죠. 현악사중주에 비올라나 첼로를 더한 현악오중주와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으로 구성된 목관오중주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피아노 오중주 / 출처: clamartists.com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1756~1791) :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오중주 (1784)

Wolfgang Amadeus Mozart : Quintet for piano and winds in E♭ major, K452

“저는 두 곡의 대규모 협주곡과 오중주 한 곡을 작곡했어요. 이 곡들은 굉장한 갈채를 받았답니다. 지금까지 작곡한 곡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요. ... 들어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주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사실 전 연주를 많이 해서 마지막에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래도 청중들은 결코 피로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자신할 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 출처: psmag.com

있어요.” 이 글은 모차르트가 빈의 황립궁정극장에서 초연 후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모차르트는 이 오중주곡에 매우 만족해했죠. 피아노와 목관이라는 독특한 편성에 도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기에 그 기쁨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피아노가 음악을 리드하고 있어서 소규모의 피아노 협주곡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각 목관악기의 음색이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앙상블에서 모차르트의 남다른 감각에 감탄하게 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1797~1828) : 피아노 오중주 가장조 ‘송어’ (1819)

Franz Schubert : Piano Quintet in A major, Op. 114 'The Trout' D667

<피아노 오중주 ‘송어’>는 슈베르트의 가장 인기 있는 실내악곡 중 하나입니다. 밝고 유쾌한 분위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같은 이름의 가곡 <송어, D.550>(1817)의 선율을 사용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가곡은 한 어부



프란츠 슈베르트 / 출처: operawire.com

가 강에 흙탕물을 일으켜 송어를 잡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크리스티안 슈바르트의 풍자적인 시에 동작을 묘사하는 듯한 멜로디를 붙인 것인데요, EBS에서 방영한 ‘치로의 클래식 동요’에서도 볼 수 있죠. 당대 유명한 바리톤 가수 요한 포글이 슈베르트의 음악 모임인 ‘슈베르티아데’에서 처음으로 이 곡을 불렀습니다.

초연 후에 슈베르트는 포글과 함께 포글의 고향인 슈타이어를 방문했습니다. 포글은 광산업자이자 음악애호가였던 질베스터 파움가르트너에게 슈베르트를 소개했는데, 파움가르트너는 가곡 <송어>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 선율을 주제로 하는 실내악곡을 의뢰했습니다. 슈베르트는 2년 후에 <송어 오중주>를 완성하고, 악보를 파움가르트너에게 보냈죠. 아마도 의뢰자의 집에서 초연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출판은 세상을 떠난 후인 1829년에 이루어졌죠. 슈베르트를 주목하던 베토벤은 이 곡으로 그의 실력을 인정했고요, 오늘날에도 이 곡은 슈베르트가 작곡한 실내악 중 첫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곡에 편성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피아노의 각기 다른 악기 중 가장 눈에 띄는 악기는 더블베이스입니다. 유머러스한 분위기가 저음을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되어있죠. 그리고 첼로의 활약도 두드러지는데요, 이것은 파움가르트너가 첼로를 연주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체 악장 수가 일반적인 네 악장이 아닌 다섯 악장인 것도 특이한데요, 베토벤이 작곡하지 않은 장르에서만 큼은 마음껏 자유를 누렸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악장은 4악장입니다. 가곡의 주제가 등장하여 변주되기 때문이죠. 먼저 바이올린으로 주제가 연주된 후 다섯 개의 변주가 악기를 바꿔가면서 이어집니다. 특히 D장조, D단조, F장조의 산뜻한 조옮김이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로베르트 슈만 (1810~1856) : 피아노 오중주 내림 마장조 (1842)

Robert Schumann : Piano Quintet in E♭ major, Op. 44

슈만은 하나의 장르를 작곡하기 시작하면 한동안 같은 장르의 작품을 계속 작곡하곤 했습니다. ‘Op. 1’부



슈만과 클라라 / 출처: commons.wikimedia.org

터 'Op. 23'까지는 모두 피아노곡이고요, 클라라와 결혼한 1840년에만 무려 168곡의 가곡을 한꺼번에 작곡했죠. 그래서 1840년을 '가곡의 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42년은 '실내악의 해'라고 불립니다. 실내악곡을 특히 많이 작곡했기 때문이죠. <피아노 오중주>가 탄생한 것도 바로 이 해였습니다.

요즘에는 일반적인 피아노와 현악사중주를 더한 편성은 슈만이 살던 당시에는 흔치 않았습니니다. 두세크와 보케리니 등이 이 편성으로 곡을 쓴 적이 있지만, 사실상 음악사적인 의미가 있는 작품은 바로 슈만의 오중주죠. 슈만은 이미 실내악 장르로 확고히 자리 잡은 현악사중주에 피아노를 더함으로써 극적 표현력을 크게 확대했는데, 이 음악적 효과는 당대 음악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슈만은 아내인 클라라가 연주하는 피아노가 주도권을 이끌면서도, 현악사중주와 피아노가 대립하고 화합하는 구도로 곡을 진행했습니다.

초연은 라이프치히에서 이루어졌는데, 하지만 리스트는 멘델스존의 영향을 받은 "지나치게 라이프치히스러운" 보수적인 작품이라고 비판하는 등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평생 이 곡을 연주했으며, 많은 후배 작곡가들이 이 장르의 곡들을 작곡하여 슈만의 뒤를 이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1833~1897) : 현악오중주 2번 (1890)

Johannes Brahms : String Quintet No. 2 in G major, Op. 111

브람스는 1890년 여름에 휴양지였던 바트 이슬에 머물면서 <현악오중주 2번>을 완성하고는 돌연 작곡을 그만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의 심정은 빈 악우회의 사서였던 오이제비우스 만디체프스키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나이 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 작곡할 기력도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성실히 해왔고 충분히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 더 바랄 게 없는 노년이 되었고 평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악오중주 2번>은 브람스의 음악 세계를 일단락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듬해에 클라리넷 연작들을 내놓으며 작곡을 재개하지만 말이죠.

소나타 형식의 1악장은 물이 넘실대는 듯한 반주 위에 첼로가 주제를 연주하며 시작합니다. 물살이 더욱 거칠어지면서 휘몰아친 후, 빈의 우아한 분위기를 담은 두 번째 주제가 첼로의 피치카토를 타고 등장합니다. 발전부로 진입하면 극적인 긴장감이 고조 되고, 재현부에서는 집으로 돌아온 듯 평안을 되찾습니다. 느린 2악장은 우수에 찬 낭만적 감수성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 악장은 비올라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두 대의 비올라가 첼

로의 피치카토 반주 위에 감성적인 주제를 제시한 후, 자유롭게 변주하며 진행합니다. 폭풍과 같이 몰아칠 때까지 고조된 뒤에 또다시 비올라가 주제를 재현하며 마무리합니다. 3악장은 빠른 멜로디로 멜랑콜릭한 감성을 드러내는 부분과 밝고 우아한 표정을 짓는 부분이 대조됩니다. 4악장은 론도 형식으로, 헝가리 무곡풍의 빠른 리듬으로 힘차게 진행합니다. 점차 밝은 분위기에서 춤의 여흥이 고조되고, 여흥을 유지한 채로 마무리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 출처: audioemporium.com

파울 힌데미트 (1895~1963) : 작은 실내음악, 작품번호 24, 2번 (1921)

Paul Hindemith : Kleine Kammermusik für Bläserquintett, op. 24 no. 2

힌데미트는 1921~27년 사이에 '실내음악' 시리즈를 작곡했습니다. 바흐를 모델로 삼고 이성적 음악을 추구했던 만큼, 이 곡들은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시리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품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파울 힌데미트 / 출처: pinterest.com

다. 그런데 힌데미트의 '실내음악' 시리즈는 번호상으로는 7번이 마지막이지만, 이 제목을 가진 곡은 모두 여덟 곡입니다. 번호가 없는 하나는 바로 목관오중주곡 <작은 실내음악>이죠. 15분 이내의 짧은 길이지만 대단히 강렬합니다.

1악장은 행진곡 스타일로 돌진합니다. 마치 말을 타는 듯한 리듬으로 가볍고 유머러스하여 장난감 기마병을 연상시킵니다. 2악장 '왈츠'는 진지하고 심각한 분위기 속에 어린이와 같은 장난기가 숨어있으며, 3악장은 시무룩해 보이지만 평온하게 마무리합니다. 4악장에서 호흡이 길고 서정적인 선율로 잠시 긴장을 늦춘 후, 5악장은 발이 땅에 닿을세라 뛰쳐나갑니다. 다양하고 당돌하기까지 한 화음들이 연속하는데, 마지막은 단3도 화음(E-G)으로 깔끔하게 매듭짓습니다. 힌데미트는 복조성(두 가지 이상의 조성이 한꺼번에 사용되는 음악)과 불협화음을 자유롭게 사용했지만, 더 이상 나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이죠.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1906~75) : 피아노 오중주 사단조 (1940)

Dmitri Shostakovich : Piano Quintet in G minor, Op. 57

쇼스타코비치는 초기에 교향곡을 비롯한 관현악곡들과 무대음악 등 대규모 작품들을 통해 존재감을 각인

시켰으며, 이 곡들 때문에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실내악곡들은 개인적인 생각과 심상을 표현하는 장르로 자리 잡으면서, 관현악곡과 또 다른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오중주>에서도 그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중주임에도 독주나 사중주 등보다 작은 규모로 진행하는 부분이 많아 더욱 개인적이고 내밀해 보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중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란스러운 세상을 잠시 외면한 듯 보이죠. 이듬해에 작곡된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1941)와 비교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듬해 이 곡으로 스탈린 예술상 1등급을 받은 것을 보면, 의도가 어쨌든 쇼스타코비치의 대외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율이 명확하고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 이해하기 쉬워서 당시 소련이 요구하는 예술관에 잘 맞춰져 있다는 점도 적잖이 기여했을 것입니다.

1악장 '전주곡'이 시작하면 여덟 마디 동안 홀로 장중하고 힘차게 연주하는 피아노의 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현악기들은 같은 리듬이나 유니즌으로 연주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강하게 호소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2악장 '푸가'는 악음기를 낀 현악기들이 조용히 제1바이올린부터 차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길을 저마다 찾아가죠. 3악장 '스케르초'는 2악장과 대비되어 열정적이고 운동성이 있으며 빠르게 돌진합니다. 후퇴를 모르는 군대의 돌진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4악장 '간주곡'은 제1바이올린의 주도로 애가를 연주하며, 마지막 5악장 '피날레'는 피아노가 주제를 제시하고 피아노와 현악기가 이 주제를 주고받으며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피아노가 행진곡풍 주제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해보지만,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사색적으로 진행하다가 어느덧 마무리합니다. 🎧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 출처: reddit.com